

현대차그룹, 'K4·더 뉴 투싼' 공개...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2024 뉴욕 국제 오토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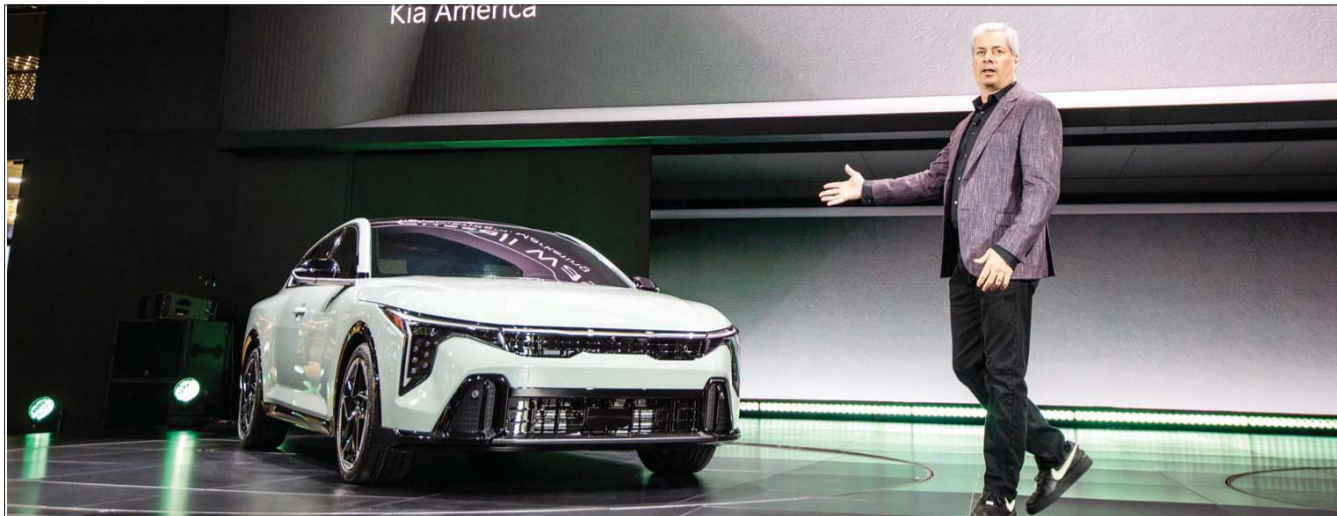
현지시장 최적화 전략모델 소개
현대차, '2025 싼타크루즈' 선보
기아, 'K4' 을 하반기 북미 출시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지 시장을 겨냥한 신차를 잇따라 선보였다. 특히 기아는 기존에 없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기아 K4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준중형 차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신형 세단이다. 역동적인 느낌이 한층 강화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전면부는 범퍼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로형 헤드램프가 넓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고, 별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라이팅 기술은 한층 진화된 기아의 타이어 페이스를 보여준다. 측면부는 엇갈린 사각형 조형을 따라 생성되는 빛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표현하는 동시에 루프에서 후면부 끝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실루엣으로 시각적 역동성을 극대화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차체의 가장 끝에 배치한 세로형 램프가 하단부 범퍼를 수직으로 잘라내듯 길게 이어지며 에어 디퓨저와 함께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러셀 와거 기아 미국판매법인 마케팅담당(상무)이 '더 기아 K4'를 소개하고 있다. /기아



현대차는 '더 뉴 투싼(좌)'과 '2025 싼타크루즈(우)'를 최초 공개했다. /현대차



/현대차

강인한 느낌을 더한다.

더 뉴 K4의 전장은 4710mm, 전폭은 1850mm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점도 돋보인다. "헤이, 기아(Hey, Kia)"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다채로운 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

는 것이다.

K4는 개발 단계부터 북미 시장을 노린 해외 전략 모델이다. 국내 출시 계획은 없으며, 올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K3를 올 하반기 단종하고 후속으로 준중형 세단 전기차인 EV4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K4는 앞선 기술과 과

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역동적인 세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아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K4는 기대 이상의 상품성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이날 미국 현지 시장을 겨냥해 준중형 SUV '더 뉴 투싼'을 공개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투싼의 부분

변경 모델로, 이전 모델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 편의사양이 강화됐다.

투싼은 현대차의 차종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다. 작년 미국에서 20만 9624대가 팔렸고, 지난 5년간 미국서 79만 6918대가 팔렸다. 내연기관은 물론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된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인 투싼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대폭 개선된 넓고 스마트한 실내 공간, HEV, PHEV, 내연기관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 차급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 등이 주요 특징이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XRT 모델 및 N 라인 모델을 함께 운영한다. 또 첨단 주행 신기술을 적용하고 정속성을 강화해 주행감성을 높였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 및 차체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충돌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한 차원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E-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또 현대차는 이날 북미 전용 픽업트럭인 '2025 싼타크루즈'를 처음 공개했다. 싼타크루즈를 2021년 북미 시장에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상품성을 개선해 선보이는 것이다. 강인한 외장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과 기술력이 강조된 내장 디자인을 구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이노, 박상규 대표 체제... "전체 사업영역 체질개선"

정기주주총회

효율성 관점 전략방향 재점검
"내실다지기 통해 새로운 도약"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올해 SK이노베이션 전략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박상규 사내이사 선임 ▲강동수 사내이사 선임 ▲장용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지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백복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총괄 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SK이노베이션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SK그룹 내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의 내실

강화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사장은 주총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 부문장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성과관리, 신규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장용호 SK㈜ 사장은 사업·전략 전문가로서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김정관, 최우석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지은 前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를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외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후에 배당 기일을 정하도록 한 정관 일부 개정 ▲재무제표 승인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기주총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주와 경영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주주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과 최영찬 SK온 최고관리책임자(CAO) 사장이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2024년 전략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효율성 관점에서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재점검하고 안정적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구축에 힘을 계획했다.

박 사장은 "전체 사업영역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이러한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기술연구소에서 '모비스 소프트웨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대모비스

'모비스 SW 컨퍼런스' 성료

현대모비스 전문 개발자들과 연구원들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영역인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모비스 소프트웨어(SW)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정보, 그리고 다양한 연구 사례가 공유됐다.

압둘 칼림 현대모비스 SW혁신센터장은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 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

포스코퓨처엠, 아시아 '30대 혁신 기업' 선정

포스코퓨처엠이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아시아 3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

28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아시아 퓨처 30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상의 700여개 기업 중 장기 성장을 이끌 혁신성과 활력을 갖춘 상위 30개 기업이다.

올해 처음 발표된 30개 기업에는 포

스커퓨처엠 외에도 친환경·인공지능(AI)·전기차업종에서 알리바바 헬스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BYD(비야디), 니오(NIO), 이브 에너지(EVE Energy) 등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에는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해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가 선정됐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욱 사장은 "각 분야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